

분리 배출 잘 안되는 종이팩 재활용률도 크게 낮다

작년 국내 재활용률 20%...연간 5만5000t 매립·소각으로 사라져 광주 1인당 종이팩 회수량 50g...전국 평균 절반에도 못미쳐 심각

우유 등 유제품 용기로 사용되는 종이팩의 재활용률이 턱없이 낮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종이팩은 고급펄프로 제작돼 재활용가치가 높지만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일 광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종이팩 재활용률은 약 20% 수준으로 지난 2018년 사용된 7만 773t 가운데 1만 5773t만 재활용됐다.

나머지 5만 5000t은 매립이나 소각된 셈이다. 광주지역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단체에 따르면

2019년 광주지역 1인당 종이팩 회수량은 50g으로 전국 평균인 110g에 견줘 절반에도 못미쳐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5월 5개 자치구 내 50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종이팩 분리 여부와 수집량 등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이팩 전용 분리수거함이 설치된 곳은 아파트 50단지 중 단 한 곳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일반 종이류와 혼합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단독주택이나 원룸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단체는 또 종이팩 분리배출과 재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200여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했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70%가 '종이팩을 분리배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 가운데 50%가 '일반 종이와 함께 혼합 배출한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종이팩 분리배출을 알면서도 일반 종이와 함께 혼합배출하는 이유로 '종이팩 배출량이 적어서', '별도의 분리수거함이 없어서'라고 답했다. 또 종이팩에 담긴 내용물을 비운 뒤 씻어 배출해야 하지만 '씻지 않고 그냥 배출한다'고 답한 응답자도 36%에 달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종이팩 분리배출은 물론 내용물을 비운 뒤 씻어 배출하는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

했다.

단체에 따르면 광주의 한 민간업체가 최근 4년간 종이팩을 수집해오다 종이팩 상태가 불량해 결국 제지업체가 반입을 거부하면서 현재 광주에서는 종이팩을 따로 수집하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배출과 수집단계에서의 개선이 당장 필요하다. 분리함 설치와 시민 실천을 견인할 홍보 등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며 "다만 분리함 설치의 종이팩 수집과 종이 공장까지 이어질 수 있는 대안에서 고려돼야 한다. 개별 분리함이 있어도 정작 최종에 가서는 일반종이와 혼합한 사례를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하천에서 배우고 놀자”

‘두물머리 하천교실’ 프로그램 광주환경연합, 참가자 12일까지 모집

광주지역 청소년들에게 하천의 중요성과 보존의 필요성을 알리는 “하천에서 배우고 놀자”라는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두물머리 하천교실’ 프로그램 참가자를 오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두물머리 하천교실은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우리지역 하천의 중요성과 생태 가치를 배우고 도심 하천이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수자원의 하나라는 인식의 전환을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오는 13일부터 6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에 진행된다.

1기(6월13일·20일·27일)와 2기(7월4일·11일·18일) 프로그램은 각 3강으로 구성됐다.

1강은 광주시 동구 소재 동광주천 상류에서 물고기와 수생식물을 살펴보고, 2강은 광주시 월남동 주남마을 일대 광주천에서 하천 곤충과 저서생물 종류를 관찰한다.

마지막 3강은 광주시 서구 치평동 상무교 일대 광주천 하류에서 하천 생태계와 둔치 식물을 학습하는 프로그램으로 준비됐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선착순으로 20명(기수별 각 20명)을 모집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광주환경연합으로 하면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기록에 없는 ‘갈색솔딱새’ 흑산도서 첫 확인

상록수림에서 서식...나비·잠자리 등 곤충 잡아 먹기도



국내에 기록이 없던 갈색솔딱새(사진)가 흑산도에서 처음 발견됐다. 국립공원공단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난달

12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인 신안군 흑산면에 위치한 배낭기미습지에서 생물자원 조사 중에 그동안 국내에 기록이 없었던 미기록종 ‘갈색솔딱새(가칭)’를 최근 발견했다고 2일 밝혔다.

주로 상록수림에서 서식하며 나비, 잠자리, 개미 등의 곤충을 주로 먹는 갈색솔딱새는 크기 13~14cm의 솔딱새과의 소형 조류이다.

이 새는 인도 북동부에서 중국 중남부, 미얀마 북동부, 태국 북서부까지 번식하며, 인도 서남부와 스리랑카 등지에서 월동을 하고 4월부터 6월까지 번식하며, 이끼 등을 이용해 뽕뽕한 털이나 덩굴식물 내에 겹 모양의 둥지를 짓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치매어르신 부부 20팀에 ‘웨딩포드’ 광주시 서구는 최근 풍암생활체육공원 내 오매불망힐링파크에서 치매어르신 부부 20팀을 대상으로 리마인드 웨딩사진을 촬영했다. 이번 행사는 5월 가정의 달 및 부부의 날을 기념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고자 마련됐다.

광주 비영리단체 지원 ‘NPO법률지원단’ 위촉

광주지방변호사회·재단법인 동천 NPO, 프로보노 활동 확산 계기 마련

광주지역 비영리단체들을 위한 법률지원단이 마련됐다.

2일 광주지방변호사회와 재단법인 동천 NPO(사회 각 분야에서 공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법센터에 따르면 지난 30일 광주변호사회관에서 진행된 ‘광주 NPO법률지원단 연수’에서 20명의 변호사가 광주 NPO법률지원단으로 위촉됐다.

이번에 위촉된 광주 NPO법률지원단은 서울과 수도권외의 지역에서는 처음이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NPO법률지원단’ 연수는 자신의 법적 전문성을 활용해 NPO를 돕고자 하는 변호사들에게 NPO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NPO에서 발생하기 쉬운 법률문제의 쟁점과 사례 등을 교육하고, 그들이 희망하는 분야의 NPO와 1

대 1로 연결해 변호사들에게는 프로보노(공공의 이익을 위한 무료봉사) 활동의 장을 마련, NPO에게는 언제든지 편하게 법률적인 지원을 받으며 본연의 공익활동을 더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NPO법률지원단으로 위촉된 변호사들은 최소 2년 간 자신과 매칭된 NPO가 필요로 하는 법률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이번에 위촉된 광주 NPO법률지원단 변호사들은 광주 지역 NPO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며, 동천NPO법센터와 광주지방변호사회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북구, 생활 방역 차원 취약지역 집중 정비

코로나19 극복 위해 도시공원·공중화장실 관리 등

광주시 북구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깨끗한 북구 만들기에 나선다.

북구는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취약지역 생활환경 정비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북구는 27개동 생활불편신고센터와 연계해 ▲도시공원 및 가로녹지 관리 ▲공중화장실 관리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코로나19 방역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노상적치물 정비 ▲도로시설물 정비 ▲불법주정차 단속 등 8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생활환경 정비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해 북구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생활 방역 차원에서 지난달부터 진행 중이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지난달부터

국립5·18민주묘지 주요 관문과 주요 사적지 주변을 중심으로 도로 포트홀과 보도를 정비하고 가로 녹지 제초, 공중·개방화장실 위생 관리 등에 주력하고 있다.

동 생활불편신고센터로 접수된 민원과 주요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코로나19 예방 방역,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주정차 단속 등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산수1동 행정복지센터

마을사랑채 프로그램 ‘문 활짝’

광주시 동구가 마을사랑채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일 동구에 따르면 산수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마을사랑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가방·소품 공예 교실과 붓글씨 체험교실을 열었다.

‘가방·소품 공예 교실’은 지난 27일 개강해 가방 공예 2회, 다도체험 1회 등 총 3회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 강의에서는 산수1동 주민자치회 및 희망나눔 실천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유경(SIZ공방대표)위원의 재능기부를 통해 저소득층 한부모 여성 12명을 대상으로 자수 예코백을 직접 제작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지난 29일 개강한 ‘붓글씨 체험교실’은 문화동아리 ‘서사모’ 회장유재영님의 재능기부를 통해 총 3회차로 진행되며, 동구내 경로당 어르신 15명을 대상으로 가운을 써 보는 시간을 갖고 어르신들이 직접 쓴 붓글씨와 작품은 액자형태로 만들어 증정할 예정이다.

산수1동 마을사랑채는 다음달까지 ▲가방공예 ▲글씨 체험 및 가운액자 만들기 ▲가족공예 ▲LED등 만들기 ▲한지공예 ▲떡 케이크 만들기 등 6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며, 230여명의 주민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